

<http://dx.doi.org/10.20880/kler.2018.53.2.111>

## 자기이해로서의 고전시가 교육 —「처용가」를 중심으로

오수엽 안동고등학교 교사

- \* 이 논문은 제64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2017.8.2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나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I. 머리말
- II. 현재적 재맥락화와 자기이해
- III. 「처용가」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통한 자기이해
- IV. 맺음말

## I. 머리말

오늘날 교육의 이념이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문학 교육 내에서도 독자 중심적 시각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고 있다. 독자 중심적 문학이론은 1970년대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용미학” 혹은 “독자 반응 비평” 등으로 불리며 활발히 전개된 문학 연구와 교육의 이론으로서(김진희, 2016: 260), 작품 해석 과정에서 독자의 능동적인 반응과 의미 구성을 중요시한다. 독자 중심적 문학이론에서 작품의 의미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독자 개인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상대적인 개념이 된다.

이에 따라 문학 교육에서 해석에 대한 관심은 작가와 텍스트에서 독자 의 의미 구성 과정으로 그 초점이 옮겨 갔다. 시 해석 교육에서도 독자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sup>1)</sup> 독자 중심 비평에서 일반적인

---

1) 김정우(2006: 16-17)는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 과정 및 대화의 과정에서 텍스트가 다양한 의미로 실현될 수 있으며, 시는 이러한 특성이 가장 극대화된 텍스트이므로 시 교육

문제로 제기되는 소위 해석학적 무정부 상황, 즉 작품 해석이 개별 해석자의 주관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해결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나아가 독자 중심 문학 교육의 실천적 국면에서 실제로 독자의 의미 구성 행위가 중요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논의된 바 있다.<sup>2)</sup>

자연히 고전시가 교육의 관점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고전시가 교육은 오랫동안 국어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근래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sup>3)</sup> 과거 고전시가의 가치는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성의 차원에서 다소 당위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 상대주의적 가치가 대두되고 문학교육 전반에서도 독자 중심 문학이론이 전면화되면서 고전시가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고전시가의 언어는 현재 학습자들의 언어와 차이가 있어 학습자들은 작품의 해독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작품을 둘러싼 상황이나 문화 등 향유 맥락이 달라 학습자와 작품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시공간적 거리감이 형성된다. 그동안 고전시가 교육은 이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트 중심의 실증적 해석에 집중해 왔으며, 그 결과 해석 과정에서 독자는 능동적인 의미 구성의 주체로 정립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고전시가 교육에서는 작품의 시 공간적 거리감, 즉 타자성이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과 해석에 미치는 궁정

---

에서는 독자의 해석 문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 2) 독자 중심 비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의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석 공동체' 개념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정정순(2016: 253-279)은 '해석 공동체' 개념이 오히려 개인의 의미 구성을 축소시키는 한편 독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고 보고, 개별 독자가 자유롭게 반응을 공유하고 즐기는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3) 광복 이후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적 관점에서 강조되었던 고전문학은 3차 교육과정기까지 국어과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면서 '언어사용능력의 신장'이 국어과의 목표로 부각되고 고전문학이 <문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편입되면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한 이후, 고전문학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교육 과정 내에서 그 위상이 약화되어 왔다(이상일, 2016: 74-89).

적 영향을 다루는 논의<sup>4)</sup>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석에서 의미구성자로서 독자가 지니는 위상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자 중심 문학이론을 바탕으로 고전시가에 접근하는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고전시기의 시공간적 거리감이 현대 독자들에게 존재하는 심리적 실재라고 했을 때(조희정, 2006: 67), 고전시가의 낯섦 혹은 타자성은 독자에게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하나의 충격으로 작용한다. 즉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독자에게 새롭고 낯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익숙해져 있던 기준 질서를 의문시하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기이해의 지평을 마련하도록 돋는다. 이처럼 고전시가의 시공간적 거리감은 그 타자성으로 말미암아 독자에게 새로운 자기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에서 자기이해란 실체적인 독자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말한다. 즉 자기이해에서 ‘자기’는 사회·역사적 상황과 문화, 이데올로기 등 의식적·무의식적 차원에서 주체에게 작용하는 모든 타자와 세계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sup>5)</sup>

그러나 만약 타자성이 낯섦 그 자체로만 취급된다면 타자성으로 인해 촉발되는 충격은 새로운 자기이해로 확장되지 못할 것이다.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현재 독자의 삶을 둘러싼 맥락과 유의미하게 연결될 때 그 교육적 가치가 마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독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타자의 자기화 과정 앞에서만 가치 있는 타자성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 고전시가의 타자성이 자기이해의 확장

- 
- 4) 최근 고전시가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는 작품의 타자성을 중요한 교육적 요소로 본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정희(2013), 조희정(2006), 최광석(2009)을 참고할 수 있다.
  - 5) Ricoeur와 Lacan은 주체 개념에서 타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Ricoeur에 따르면 타자성은 외부에서 자기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성의 의미 내용과 존재론적 구성을 자체에 속하는 것이다. Lacan의 주체 개념 역시 타자성의 두 가지 형태 사이의 분열로 설명된다. 자세한 내용은 Fink(1997/2010: 79-136), Ricoeur(1990/2006: 419-467)를 참조할 수 있다.

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원리에 대한 구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시가의 타자성을 바탕으로 확장된 자기이해를 형성하는 원리의 한 방안으로서 고전시가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먼저 고전시가의 타자성과 자기이해의 관계를 구체화한 후 현재적 재맥락화의 개념을 정립할 것이다. 이후 III장에서는 「처용가」를 대상으로 고전시가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통한 자기이해의 구체적 예를 살펴볼 것이다.

## II. 현재적 재맥락화와 자기이해

문학교육에서 자기이해는 핵심적인 내용 요소이다. “대상을 통한 자기 발견과 이해는 문학의 존재 가치이면서 본질에 해당(김대행, 1992: 51)”하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에서의 자기이해가 “작품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이해의 주체인 해석자가 이해의 대상인 작품으로 인해 오히려 변화를 겪고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되는 것(김정우, 2006: 19)”이라고 했을 때 자기이해에는 타자인 대상을 통한 자기성찰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독자는 텍스트와 만나는 경험을 통해 타자로서의 세계와 그러한 세계에 둘러싸여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발전적인 자기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이강옥(2009)은 문학 수업에서 학습자는 자신과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되며, 이러한 성찰의 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나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이라고 보았다.<sup>6)</sup> 최홍원(2012: 80-106) 역시 자기이해를 사

---

6) 이강옥(2009: 33-35)은 깨달음에 이르는 문학 수업을 구현하면서 관찰단계, 자기화 단

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통한 주체의 세계 인식과 자기 이해의 문제를 문학의 본질적인 과제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성찰적 사고란 지향성과 반성, 자기이해의 과정으로서, 지향성과 반성은 자기이해를 위한 주요 과정으로 기능하며, 자기이해는 성찰적 사고의 도달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자기이해는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때 고전시가 텍스트가 지니는 타자성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인식의 모티프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일견 고전시가 텍스트의 맥락은 현재 학습자들의 삶과 많은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있어 유의미한 교육적 사태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오히려 그 낯섦으로 인해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현대사회의 문화로부터 한 발짝 벗어남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현재의 삶에 대해 의심할 수 있게 이끈다(고영화, 2014: 9). 즉,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현대사회의 문화와 문명 일반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정희(2013: 30) 역시 고전시가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활용하는 논의에서 Culler의 의심의 해석학<sup>7)</sup>을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의심의 해석은 고전시가 텍스트의 저자에게는 전혀 생소한 방식으로 텍스트에 참여하여

---

계, 비판 단계, 성찰 단계, 깨달음의 단계로 수업 단계를 설정한 후 이들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독자는 주체의 본질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

- 7) Culler(2011/2016: 123-124)는 문학 해석을 회복의 해석, 의심의 해석, 징후적 해석으로 구분했다. 회복의 해석은 ‘작품이 생산된 원래의 상황(저자의 환경과 의도 그리고 텍스트가 원래의 독자들에게 갖고 있었을 의미)을 복원하려는 것’, 의심의 해석은 ‘텍스트가 의존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들(정치적, 성적, 철학적, 언어적)을 폭로하는 것’, 징후적 해석은 ‘텍스트를 외적인 어떤 것의 징후나 증상으로, 즉 보다 심층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의심의 해석에서 ‘텍스트가 의존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들’이란 작품의 형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맥락으로서 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텍스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통론이 지향하는 회복의 해석을 넘어 고전시가 텍스트와 학습자의 대화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고전시가의 시공간적 거리감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고전 텍스트에 접속한 나에 대한 물음, 고전 텍스트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차이에 대한 물음, 내가 처한 상황을 돌파하는 데 고전 텍스트는 어떤 유의미한 상상력을 제공하느냐의 물음(조희정, 2006: 87)”과 생산적으로 연결될 때, 고전시가 텍스트는 그 타자성을 통해 학습자에게 새로운 자기이해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전시가 해석에서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중점을 둘 경우, 자칫 학습자 “자신이 가진 선입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감상이 종료되어 텍스트를 통해 확장된 자기의식이 아니라 본래의 자의식을 확증한 것에 불과한 것(고정희, 2013: 35)”이 될 우려가 있다. 이때 전유(轉有, appropriation)를 강조하는 Ricoeur의 해석학은 독자 중심 비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긴한 참고가 된다.

해석이란 새로운 존재 양식을 탈은폐함으로써 주체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중략) 전유는 이제 더 이상 일종의 소유라든가 사물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대신에 그것은 이기적이고 나르시즘적인 자아를 버리는 계기를 함축한다. (중략) 이 새로운 자기-이해에서, 나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형성된 자기(the self)를 그 이해에 선 험한다고 주장하는 자아(the ego)에 대립시키고자 한다. 자아에게 자기를 선사해 주는 것은 바로 세계를 탈은폐하는 보편적 힘을 가진 텍스트이다(Ricoeur, 1976/1998: 156-157).

Ricoeur의 전유는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가 기존의 확고했던 자기의식(ego)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기(self)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다. 전유에서 독자는 타자로서의 텍스트가 계시하는 세계를 통해 ‘이기적이고 나르

시시즈적인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기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곧 타자로서의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후기 구조주의와 정신분석학 아래로 주체의 본질에는 항상 타자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바, 전유에도 “나라는 주체는 나 자신의 주관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타자에게서 빌려온 것(고정희, 2013: 153)”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전유 과정에서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학습자의 자기성을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학습자는 텍스트의 타자성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기이해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때 학습자는 텍스트에 우선하는 주체의 위치에서 텍스트에 자신의 유한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텍스트 앞에 자신을 노출하고 텍스트를 통해 확장된 자기를 받아들이는 텍스트의 제자가 된다.<sup>8)</sup>

이처럼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기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자신보다 타자를 바라 볼 때 보다 객관적인 평가자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타자성은 새로운 자기이해에서 유효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의 강요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타자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잘 형성 되지 않기 때문이다. 텍스트에 대한 성찰이 다시 자기에게로 전이되는 전유 속에서 학습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sup>9)</sup>

- 
- 8) 고정희(2013: 164)는 독자는 텍스트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Ricoeur의 말을 강조하면서 독자는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자아를 텍스트에 덮어씌우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텍스트의 세계에 복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9) 참고로 문학의 타자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찰의 결과를 독자 자신에게로 확대함으로써 확장된 자기이해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의는 현대문학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다.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 대한 연구에서 이명찬(2005: 17-22)은 ‘자신의 옹졸하고 비겁한 소시민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자기비판적 고백을 통해 독자들의 반성을 유도 한 것’을 이 시의 주류적 해석으로 파악했다. 또한 진은경(2016: 394-395)은 김수영의 시에서 중요한 점은 화자의 내적 독백이 점차 외부의 청자를 지향해 나가는 것으로서, 결국 내면탐구의 고백시에서 사회적 발언이 강해지는 확장적 문학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전시가의 타자성을 자기화하는 전유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다시 말해 고전시가의 맥락에 내재되어 있는 시공간적 거리감은 어떻게 학습자의 현재 맥락으로 전이될 수 있는가? “전유의 개념 안에 이미 텍스트를 현재의 상황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가 포함(고정희, 2013: 151)” 되어 있다면 텍스트의 현재적 적용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가 상세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시가의 시공간적 거리감이 새로운 자기이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텍스트의 맥락을 자신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연결 짓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한 과정 없이 고전시가의 타자성이 그 자체로 학습자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기이해로 전이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시공간적 거리감이 크면 클수록, 전유를 통한 자기이해의 길은 그 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텍스트가 보여주는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학습자가 텍스트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시가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충격과 긴장을 주는 타자적인 대상인 동시에, 학습자의 현재 삶에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 동질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처럼 자기이해를 위한 고전시가 교육에는 타자성과 동질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현재적 재맥락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현재적 재맥락화’란 학습자가 고전시가 텍스트의 맥락을 자신의 현재 맥락에 적극적으로 투영함으로써 고전시가에 내재되어 있는 타자성을 자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은 시공간적 거리감이 주는 생산적인 효과, 고전문학을 전유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긴장감, 시간의 무게가 선사하는 정서의 두께를 무화시키는 역효과가 있는 것(고정희, 2013: 51)”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텍스트 향유 당대의 맥락과 학습자의 현재 맥락을 이어주는 연결지점으로서의 보편성마저 부재한다면, 자기이해로서의 고전시가 교육의 길은 사실상 지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윤원준(2009: 158-159)에 따르면 Ricoeur의 전유 개념 역시 거리두기를 극복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석의 결말로서 이전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텍스트가 다시 다른 상황(context)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해석은 거리두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리좁힘을 통해 텍스트가 독자의 상황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석과정은 텍스트가 속했던 과거의 문화시대와 해석자 사이의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며, 다른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의 타자적 맥락이 학습자의 현재 맥락으로 재맥락화되어 둘 사이에 동질성이 마련될 때, 고전시가를 통한 자기이해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고전시가 텍스트의 시공간적 거리감으로 인해 텍스트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sup>10)</sup>이 곧바로 학습자의 현재 상황으로 재맥락화 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심층적 맥락’을 설정할 것이다. 일반적인 맥락 구분에서의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표층적 맥락에 위치 시킨다면, 심층적 맥락은 표층적 맥락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는 맥락을 말한다. 심층적 맥락은 인간의 욕망이나 불안 의식 등 텍스트에 내재된 원형성(原型性)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텍스트가 향유되던 당시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Culler가 말한 회복의 해석학이 생산 주체의 맥락인 상황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이데올로기적 가설들을 폭로하는 의심의 해석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 두 해석적 관점이 모두 표층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심층적 맥락은 텍스트를 비텍스트적인 어떤 것의 징후로서 보다 심층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징후적 해석학에 가깝다.

---

10) 상황 맥락은 수용·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서 ‘주체와 주제, 목적’을 포함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서 ‘역사·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이 해당한다. 참고로 정정순 (2009: 127-128)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맥락은 주로 언어 외적 맥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통의 상황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고전시가의 표충적 맥락은 그 시공간적 거리감으로 인해 현재의 학습자에게 타자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타자성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그 충격이 자기와 연결되는 동질성 없이는 유의미한 교육적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심충적 맥락은 시대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문제의 차원으로서 현재 학습자의 삶과 접점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습자는 텍스트의 표충적 맥락을 넘어 심충적 맥락으로 해석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고전시가 텍스트와 자신 사이를 관통하는 동질적인 맥락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가 두 맥락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거기’의 타자성으로만 존재하던 고전시가 텍스트는 ‘지금, 여기’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텍스트로 거듭난다. 이 때 학습자가 전유하는 대상은 타자로서의 텍스트가 아니라 동질성을 통해 자기화된 텍스트 혹은 타자화된 자기 자신이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새로운 시각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확장된 자기이해로 나아가게 된다.

이처럼 고전시가 텍스트가 지니는 보편성을 심충적 맥락으로서의 동질성으로 치환하게 되면 고전시가의 타자성과 보편성 사이에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보편성을 지향하는 개념이 되고, 보편성은 타자성에 바탕했을 때에만 타자의 자기화를 통한 자기이해의 확장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고전시가 교육을 통한 새로운 자기이해는 이 둘의 상호보완적인 체계 속에서 발현된다. 이렇게 보면 ‘현재적 재맥락화’는 텍스트와 학습자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심충적 맥락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현재 삶의 표충적 맥락을 새로운 시각으로 성찰함으로써 확장적인 자기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전시가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통한 자기이해의 과정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텍스트의 표충적 맥락 파악하기
- ② 표충적 맥락 속에 내재된 심충적 맥락 이해하기
- ③ 심충적 맥락과 현재 자신 사이의 동질성 발견하기

④ 심층적 맥락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표층적 맥락을 성찰하고 새로운 자기이해 형성하기

①에서는 고전시가 텍스트의 표층적 맥락, 즉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한다. 먼저 텍스트 향유의 주체와 목적,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복원하고, 텍스트 향유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역사·문화적 배경 및 공동체의 신념을 파악함으로써 향유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출한다. 이때 두 표층적 맥락은 상호복합적인 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상황 맥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역으로 구체적인 상황 맥락들이 다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②에서는 텍스트의 표층적 맥락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심층적 맥락, 즉 표층적 맥락의 동인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이는 텍스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텍스트적인 것으로서, 이후 타자적 차원의 텍스트를 동질적 차원으로 견인하여 자기화할 수 있도록 돋는 핵심 요소가 된다. 심층적 맥락은 텍스트의 표층적 맥락을 구성하고 작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학습자 개인이 심층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텍스트와 관련된 적절한 학습 자료와 안내를 제공하는 한편 토의와 토론 등 학습자 간 상호협력 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③에서는 텍스트의 심층적 맥락과 자기 자신의 사이의 동질성을 발견한다. ②의 결과로 도출한 텍스트의 심층적 맥락은 아직까지 학습자에게 타자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심층적 맥락은 텍스트에 내재된 의식적·무의식적 원형으로서 시대를 초월한 인류 보편적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으므로 학습자의 현재 삶과 접점을 형성할 수 있다. 학습자가 텍스트의 심층적 맥락과 자신의 현재 삶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고전시가 텍스트는 타자적 차원에서 동질적 차원으로 전환된다.

④에서는 텍스트와 학습자 사이의 심충적 맥락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현재 학습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성찰한다. 텍스트와 동일한 심충적 맥락에서 형성된 학습자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현재적으로 재맥락화되며, 학습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등의 표충적 맥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 때 텍스트와 학습자의 ‘표충적 맥락 간의 타자성’과 ‘심충적 맥락 간의 동질성’은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며 학습자는 텍스트를 전유하게 된다. 이처럼 고전시가 텍스트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통해 학습자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의 자기이해를 형성하고, 나아가 삶과 세계에 대한 확장된 인식을 마련한다.

“텍스트의 이해와 수용이 현실 세계로 확장되어 조회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경험적 현실을 다시 비춰보게 하는 역할을 수행(최홍원, 2016: 379)”한다고 했을 때 표충적 맥락의 이원화를 넘어선 심충적 맥락의 동질성 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학습자가 고전시가 텍스트의 맥락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영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총체적인 맥락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성찰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시가 텍스트가 자신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느끼게 될 때 고전시가는 학습자에게 살아있는 텍스트가 되고, 고전시가 교육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자기이해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sup>11)</sup>

III장에서는 「처용가」의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고 「처용가」의 표충적 맥락과 심충적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를 현재적으로 재맥락화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고전시가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통한 자기이해 교육의 실천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1) 염은열(2014: 45)은 고전문학의 학습 경험과 재미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합함으로써 미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가 강화되고 다시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는 고전문학 학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 III. 「처용가」의 현재적 재맥락화를 통한 자기이해

「처용가」는 신라 현강왕 시대의 향가「처용가」, 이제현의 한역시인「처용」,『시용향악보』소재「잡처용」,『가사』소재「처용가」등 4종이 존재한다(허혜정, 2008: 193). 그 중 신라 향가「처용가」는 그 배경설화인「처용랑망해사조」와 함께『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으며, 고려속요「처용가」는『악학궤범』과『악장가사』,『악학편고』에 전해지고 있다.「처용가」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식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내적 생명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고전시가 텍스트이다.<sup>12)</sup> 신라「처용가」와 고려「처용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東京明期月良	동경 불기 드래
夜入伊遊行如可	밤 드리 노니다가
入良沙寢矣見昆	드리사 자리 보곤
脚烏伊四是良羅	가로리 너희어라
二盼隱吾下於叱古	두후른 내 하였고
二盼隱誰支下焉古	두후른 누기하언고
本矣吾下是如馬於隱	아시 내하이다마른
奪叱良乙何如爲理古	아사늘 엇데 흐리고

- 신라「처용가」전문<sup>13)</sup>

新羅聖代 昭聖代 / 天下太平 羅侯德/ 處容야바 / 以是人生애 相不語흐시란듸 /  
以是人生애 相不語흐시란듸 / 三災八難이 一時消滅흐شت다 / 어와 아비 즈다(으)

- 
- 12) 허혜정(2006: 46-70)은「처용가」의 현대적 전승을 캐릭터 콘텐츠, 문학 콘텐츠, 공연물 콘텐츠로 나누어 살펴보면서「처용가」를 “우리 문학사에서 1,300여 년간 면면한 생명력을 과시해온 작품으로서 우리 전통의 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 13)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처용랑망해사조(處容郎望海寺條)(홍기문, 1996 원문 참조)

여 處容아비 즈다(이)여 / 滿頭捶花 계오샤 기울이신 머리예 / 아으 壽命長願  
흐샤 넓거신 니마해 / 山象이솟 깁(깅)어신 눈넓에 / 愛人相見흐샤 오슬(을)어  
신 눈네 / 風入盈庭흐샤 우글어신 귀예 / 紅桃花マ티 블거신 모아해 / 五香마트  
샤 웅거어신 고해 / 아으 千金 머그샤 어위어신 이베 / 白玉琉璃マ티 히여신 낫  
바래 / 人譲福盛흐샤 미나거신 특애 / 七寶 계우샤 숙거신 엇게애 / 吉慶 계우샤  
늘의어신 스맷길해 / 설피 모도와 有德흐신 가스매 / 福智俱足흐샤 브르거신 빙  
예 / 紅鞞 계우샤 굽거신 허(히)리예 / 同樂大平흐샤 길어(이)신 허튀에 / 아으  
界面 도르샤 넓거신 바래 / 누고 지어서(어) 셰니오 누고 지쇠(어) 셰니오 / 바늘  
도 실도 어찌 바늘도 실도 어찌 / 處容아비를 누고 지쇠(어) 셰니오 / 마야만 마  
야만흐니여 / 十二諸國이 모다 지쇠(어) 세온 / 아으 處容아비를 마야만흐니여 /  
며자 외야자 緑李야 / 셀리나 내 신고홀 미야라 / 아니웃 미시면 나리어다 머즌  
말 / 東京 불근 드래 새도록 노니다가 / 드러 내자리를 보니 가르리 네히로새라  
/ 아으 둘흔 내해어니와 둘흔 뉘해어니오 / 이런 저기 處容아비옷 보시면 / 热病  
神(大神)이사(아) 膾人가시로다 / 千金을 주리여 處容아바 / 七寶를 주리여 處容  
아바 / 千金 七寶 말오 / 热病神을 날자바 주쇼서 / 山이여 민히여 千里外예 / 處  
容아비를 어여려거져 / 아으 热病大神의 發願이삿다

고려「처용가」전문<sup>14)</sup>

신라「처용가」와 그 배경설화는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긴 처용이 용서와 관용의 정신으로 역신을 굴복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반면에 고려「처용가」는 그 전승 과정에서 처용 찬양을 통한 역병 퇴치라는 향유의 목적이 보다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처용가」의 경우 특정 구절에 대한 해독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sup>15)</sup> 그러나 그 전승 과정에 초점을 두었을 때, 「처용가」가 신라에서부터 조

14) 봉좌문고본(蓬左文庫本)『악학궤범(樂學軌範)』, 권5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鄉樂呈才圖儀)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홍기문, 1996 원문 참조)

15) 고려「처용가」의 어석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러 논의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마야만흐니여'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발화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이견도 다수 존재한

선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에 걸쳐 향유될 수 있었던 맥락에 벽사진경(辟邪進慶)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sup>16)</sup> 신라의 노래였던 「처용가」가 고려 궁중에 들어가 조선왕조까지 내려오면서 유학의 비판을 견뎌 낸 데에는 처용이 열병을 물리치는 기능을 강화해 무속 형태로 개편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조동일, 2005: 131-134). 처용에 대한 찬양을 통해 처용의 격은 높이고 역신은 처용을 두려워하는 약한 존재로 형상화 한 점이나, “신라「처용가」의 성애적이고 체념적인 요소가 고려「처용가」에는 삭제되고 대신 진노적 성격이 강화된 점(김진, 2007: 43-65)”은 처용가의 오랜 향유 맥락에 벽사진경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처용가」가 오랫 동안 향유되면서 전승된 상황 맥락에는 신격화된 처용의 힘을 빌려 역병을 퇴치하고자 하는 소망이 존재한다.

한편 「처용가」가 향유되는 상황 맥락에는 역사·문화적 배경과 같은 간접적인 맥락, 즉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작용한다. 「처용가」가 당대 사회에서 벽사진경의 양식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주술적 이데올로기<sup>17)</sup>가 내재되어 있다. “병이라는 것이 곧 귀신이 사람의 몸에 붙어

---

다(유동석, 2012; 임주탁, 2005).

- 16) 여러 해석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처용가」의 전승 과정을 다루는 거의 모든 논의에서 벽사진경(辟邪進慶: 사악함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데로 나아감)은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진다. 처용의 형용을 문에 붙임으로써 역신의 침입을 막았다는 것은 처용 그림의 주술성을 인정한 것이며, 처용가무가 축구와 벽사의 의식인 나례에서 행해졌다는 점 역시 처용가무의 향유에 주술적 이데올로기가 깊숙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김수경, 2004; 김승찬, 1981; 최용수, 1994; 허혜정, 2008).
- 17)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가 크다. 이데올로기는 피지 배종에 대한 기득권층의 지배적 담론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계와 자신을 인지하는 관념적 체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는 사회적 지배담론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적 의미가 강하고, 후자는 부분적 진리의 체계로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의미가 강한데, 본고에서는 후자의 개념을 취한다. Zizek(1989/2013b: 61)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 체계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구조적인 순진함을 함축하며, 실제와 표상 사이의 괴리를 통해 왜곡된 현실을 구성한다.

생기는 것이라는 인식은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민중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관념(김수경, 2004: 35)"이다. 「처용가」에는 처용의 힘을 빌려 역신을 물리침으로써 역병의 극복을 기대하는 당대 사람들의 주술적 신념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처용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주술적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처용가」의 주술적 이데올로기는 텍스트의 노래와 말이 지니는 주술성을 통해 구체화된다. 고려 「처용가」의 대부분은 처용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궂에서 신을 향한 찬양은 신의 위엄과 능력을 높임으로써 뒤에 오게 될 발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김수경, 2004: 272-273)"된다는 점에서 처용에 대한 긴 찬양은 언어의 힘에 대한 주술적 신념이 형상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어의 주술성은 역신(熱病大神)을 나약한 존재로 그려내고 있는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역신은 처용아비에 비하면 횃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서 처용아비를 피해 멀리 달아나고 싶다고 발원하는 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실제 역신의 발화라기보다는 역신을 약화시켜 처용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백성들의 소망이 언어적 주술성에 기대어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처용가」가 향유된 당대의 표충적 맥락은 '주술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역병 퇴치'가 된다. 이러한 표충적 맥락이 작동하는 동인에는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비텍스트적 차원의 심충적 맥락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불안 의식이 있다. 불안은 어떤 대상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보다 정확히 말해 인간은 세계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느낄 때나 원인의 부재를 목격할 때 불안을 마주한다. 역병은 당시 사회의 통제를 벗어난 차원으로서 불안의 대상이 되는데, 「처용가」에서 이에 대한 공포를 주술에 기대어 해결하려 한 표충적 맥락의 기저에는 불안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부정합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불안에 대해서는 Heidegger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불안이 불안해하는 대상은 일상적인 세계가 붕괴되면서 자신을 섬뜩하게 드러내는 세계 자체이다. 그리고 불안이 이러한 섬뜩한 세계 앞에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불안이란 기분(Stimmung)에서 모든 세간적인 가치가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자신이 구현해야 할 가장 고유한 실존 가능성이 개시되었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박찬국, 2013: 110-111).

세간적 가치 즉, 그 사회를 지탱하던 일반적 담론이 붕괴되면서 드러난 세계의 부정합성은 존재에게 근본적인 불안을 부여한다. “이전까지 유지되던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때 갈등과 불안이 인식되는 것(최홍원, 2010: 293)”이다. 이처럼 불안은 세계의 부정합성에 존재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인간은 상징화를 통해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려 한다.<sup>18)</sup> 여기서 상징화(symbolization)란 부정합적인 세계에 일정한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조화하여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주체는 상징화 과정을 통해 불가해한 세계를 통제 가능한 새로운 구조로 변형함으로써(비록 그것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리는 환상구조라 할지라도) 불안을 해소한다. 이처럼 상징화의 결과로 구성된 현실 인식 체계는 주체가 세계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처용가」의 경우 역병이 야기하는 불안 의식이 주술적 이데올로기의 상

---

18) Freud의 포르트-다(fort-da) 논의는 유아가 놀이의 상징화 과정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아이가 최초로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할 때, 아이는 그 분리를 예측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수동적 입장에 위치한다. 특히 대상 영속성이 생기기 이전에 닥치는 어머니와의 분리 경험은 아이에게 존재적 불안과 공포를 형성하는데, 아이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어머니와의 분리와 그로 인한 공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Freud는 자신의 1살배기 손자가 실패를 던지고 당기는 놀이를 통해 어머니의 부재와 혼존을 이해하고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실재를 놀이로 상징화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현실로 재구조화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한다. 이는 주체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환상 구조를 기반으로 현실을 구성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화를 통해 극복되고 있다. 「처용가」의 향유 맥락에서 역병은 더 이상 통제 할 수 없는 불가해한 대상이 아니라 처용의 힘을 빌려 처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처용가」의 심충적 맥락은 ‘상징화를 통 한 불안 의식의 극복’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처용가」의 전체적인 향유 맥락은 주술적 이데올로기의 상징화를 통해 역병에 대한 인식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이 된다. 이때 학습자는 「처용가」의 향유 맥락을 바탕으로 상징화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특히 주술적 이데올로기는 학습자의 현재 상황에서 타자적인 것이 되는데, 그 타자성으로 인해 학습자는 인간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인간은 자신보다 타자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적용하므로, 심리적 거리감이 큰 고전 시가의 타자성은 학습자들이 「처용가」의 심충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에는 그와 같은 불안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 물음을 시작으로 학습자는 「처용가」의 심충적 맥락과 현재 자신의 맥락 사이의 동질성으로 관점을 전환하게 된다. 학습자가 고전시가 텍스트에 내재된 심충적 맥락, 즉 보편적 원형성에 주목하여 이를 자신의 현재 삶으로 확장하여 텍스트를 해석할 때, 과거의 맥락과 현재의 맥락은 이원화된 타자적 구도를 넘어 동질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동질성을 바탕으로 고전시가 텍스트는 현재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살아있는 텍스트’가 되며, 이후 고전시가의 타자성은 확장적 자기이해의 구성을 돋는 하나의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처용가」의 향유 맥락을 현재 상황으로 재맥락화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성찰하는 한편 확장적인 자기이해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현대에도 불안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화와 그로 인해 구성된 이데올로기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선 「처용가」 향유 당대의 주술적 이데올로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

다.<sup>19)</sup> 물론 현대사회의 주술적 사고관이 과거의 그것처럼 주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한다. 학습자는 「처용가」를 전유하는 과정에서 평소 잘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주술적 신념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마련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이해를 위한 「처용가」의 전유에서 보다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날의 주류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을 성찰하는 데에 있다. 「처용가」의 맥락에서 불안과 공포에 대응하는 상징화의 양식이 주술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현대사회에는 과학이 지배적 담론으로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이 주는 불안 의식에 대해 과거의 주술 이데올로기와 현대의 과학 이데올로기를 비교해 보는 것은 「처용가」의 전유에서 중요한 과정이 된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질병에 대해 발전된 지식과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주술적 이데올로기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과학은 진리를 보증하는 이성적 체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스와 메르스, 구제역, 조류독감 등 일련의 전염병이 야기하는 사회적 불안을 고려하면, 현대의 과학 역시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과학의 발전 속에서도 질병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기반 위에서 우리에게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 질병에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과학적 담론은 주술적 담론보다 불안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과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질병은 신적인 차원으

---

19) 이에 대해 Zizek은 13층이 없는 미국의 건축 문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서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13이 지니는 불길함은 13에 대한 다양한 기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12층 다음에 바로 14층을 표기하는 건축 문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죽을 死와 음이 같은 4에 대한 기괴 현상이 동일하게 존재한다. 건물 3층의 바로 위층을 5층이나 F층으로 표기하는 의식의 기저에는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체계를 억압함으로써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주술적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이택광 외, 2012: 66-67).

로서 그 원인이 비교적 뚜렷했기에 대응 방법도 명징했다. 심리적 차원에서 역병은 신에 대한 기도와 축귀 의식을 통해 제어가 가능한 대상이었고, 불안은 극복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현대의 과학은 실제로 많은 질병들을 극복하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과학의 발전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연의 불확실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현대인들에게 질병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감염 경로를 가진 통제 불가능한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질병이 야기하는 불안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오늘날의 과학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기존의 인과론적 사고를 해체하고 세계를 수많은 상관관계의 복합적 작용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혼란을 불러왔다. 과학은 진리의 담보물이 아닌 하나의 ‘과학적 의견’으로 변하게 되었고,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더욱 불확실한 세계로 변모했다.<sup>20)</sup> 이러한 세계의 불확실성은 고대에 비해 현대의 삶을 더욱 불안한 것으로 만든다. 과거의 세계는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그 전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도로 발달한 과학은 세계의 전체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습자의 현재 맥락에서 과학은 이 세계를 이해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현실의 다양한 상황과 연계되어 있으며(표충적 맥락), 불안을 극복하는 상징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다(심충적 맥락). 「처용가」 향유 당대의 맥락에서는 주술 이데올로기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있었다면, 현대에는 과학 이데올로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 역시 세계의 정합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오히려 과학의 발달은 세계의 비정합성을 더욱 명징하게 표상한다. 이때 현대의 과학 이데올로기와

---

20) Zizek(2012/2013a: 1303-1313)은 이를 자연의 종말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과학의 발달은 침범할 수 없는 배경으로서의 자연의 속성을 해체했고 그로 인해 근본적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양자물리학을 위시한 현대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현실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불완전성을 드러내면서 현상의 본질이 하나의 일정한 체계 속에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전체(the non-All)로서의 자연은 현대인들에게 더 큰 불안을 야기한다.

과거의 주술 이데올로기는 ‘상징화를 통한 불안 의식의 극복’이라는 심층적 맥락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하게 되고, 타자적으로 인식되던 「처용가」의 표층적 맥락들은 현재적으로 재맥락화된다. 이렇게 볼 때 “과거성에 대한 경험이 현재에 대한 감각을 환기한다는 말(고영화, 2014: 17)”은 고전시가의 타자성과 동질성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한 자기이해로서의 의미를 띠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과정을 바탕으로 「처용가」를 학습하면서, 학습자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사유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우선 학습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현실이 부정합적인 세계를 재구성한 상징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심화한다. 더불어 과거의 주술적 이데올로기와 현대의 과학 이데올로기가 모두 ‘불안 극복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고전시가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원형적 문제들에 대해 사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전시가의 맥락이 지니는 타자성은 학습자의 현재 삶에 대한 충격으로 작용하며, 유의미한 교육적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나아가 학습자는 과학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다양한 현실 상황을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이기적이고 나르시시즘적 자아의 편협한 자기이해에서 벗어나, 확장적인 자기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고전시가 교육이 타자로서의 텍스트를 현재적으로 재맥락화하여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혹은 사회 중심성에서의 해방을 지향(최석민, 2007: 49)”하는 새로운 자기이해와 성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한다.

#### IV. 맷음말

고전시가의 교육적 가치는 텍스트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문제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계속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현시대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읽

어내고 일상적 삶에 매몰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야기로 고전시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문학을 통한 자기 이해는 문학의 존재 가치이면서 지향해야 할 바(최홍원, 2006: 386)”라는 말에서 ‘자기 이해’는 자기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문학을 통한 새로운 자기이해와 내적 성장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고전시가 텍스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형적 문제의식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학을 통한 새로운 자기이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특히 고전시가의 시공간적 거리감은 그 타자성을 바탕으로 학습자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이해의 폭을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고전시가와 자기이해 교육의 접점을 형성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을 탐색하는 일은 의미 있는 논의가 된다고 본다.

고전시가 향유 당대와 현재의 상이한 맥락은 그 심층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고전시가가 우리에게 “다르면서 같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염은열, 2014: 45)”이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과거의 맥락을 반추하여 이를 현재의 맥락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확장적인 자기이해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고전시가는 새로운 교육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처용가」는 고전시가를 통한 자기이해 교육에서 유효한 텍스트가 된다. 「처용가」의 표층적 맥락인 주술적 이데올로기의 기저에는 ‘상징화를 통한 불안 극복’이라는 심층적 맥락이 존재한다. 학습자는 타자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처용가」의 맥락을 자신의 현재 맥락에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일상과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성찰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마련하게 된다. 「처용가」가 “얼마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미감을 담고 있다(허혜정, 2008: 160)”는 말은 「처용가」의 맥락이 현재의 맥락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재맥락화 속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고 하겠다.

고전시가 교육이 자기이해에 있어 유의미한 교육적 사태를 형성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고전시가의 포괄적 층위에서 갈래별로 다양한 작품의 역할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고전시가와 자기이해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본 논문은 2018. 4. 12. 투고되었으며, 2018. 5.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6. 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영화(2014), 「고전문학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교육연구』 61, 7-28.
- 고정희(2013), 『고전시가 교육의 탐구』, 서울: 고명출판.
- 김대행(1992), 『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학사상사.
- 김수경(2004), 『고려 쳐용가의 미학적 전승』, 서울: 보고사.
- 김승찬(1981), 『처용설화와 그 가요의 연구』, 『처용연구전집II』, 서울: 역락.
- 김정우(2006), 『시 해석 교육론』, 괜주: 태학사.
- 김 진(2007), 『처용설화의 해석학』, 울산: UUP.
- 김진희(2016), 「독자 중심적 비평의 방법과 고전시가의 해석」, 『우리어문연구』 54, 257-289.
- 박찬국(2013),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 염은열(2014), 「고전문학 '학습(學習)'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에 대한 논의」, 『고전문학과 교육』 28, 37-63.
- 유동석(2012), 「고려가요 「처용가」 연구: '마아만흐니여'의 어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159-175.
- 윤원준(2009), 「풀 리퍼트의 해석학적 전유와 윤리의 가능성」, 『조직시학연구』 12, 156-177.
- 이강옥(2009), 「문학교육과 비판·성찰·깨달음」, 『문학교육학』 29, 9-52.
- 이명찬(2005),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다시 읽기」, 『문학교육학』 17, 11-34.
- 이상일(2016), 「광복 후 고전문학교육의 70년 도정과 나아갈 길」, 『국어교육연구』 60, 71-106.
- 이택광·홍세화·임민숙(2012), 『임박한 과국』, 서울: 꾸리에.
- 임주탁(2005), 「고려 <처용가>의 새로운 분석과 해석」, 『한국문학논총』 40, 5-31.
- 정정순(2009), 「맥락 중심의 시 창작 교육」, 『문학교육학』 30, 127-151.
- 정정순(2016), 「문학 교육에서의 '반응 중심 학습'에 대한 이론적 재고」, 『문학교육학』 53, 253-279.
- 조동일(2005), 『한국문학통사 2』, 서울: 지식산업사.
- 조희정(2006),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61-93.
- 진은경(2016), 「김수영과 로버트 로웰의 '고백시' 비교연구」, 『우리어문연구』 55, 371-399.
- 최광석(2009), 「맥락을 활용한 고전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문학교육학』 30, 211-240.
- 최석민(2007), 「포스터보단 사회의 교육 목표로서 '적극적 의미'의 비판적 사고 : 사회과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4, 39-58.
- 최용수(1994), 「<처용가>에 대하여」, 『처용연구전집 II 문학1』, 서울: 역락.
- 최홍원(2006), 「성찰적 사고의 문학교육적 구도」, 『문학교육학』 21, 385-423.
- 최홍원(2010), 「고대가요에 대한 국어교육적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38, 267-302.
- 최홍원(2012), 『성찰적 사고와 문학교육론』, 괜주: 지식산업사.
- 최홍원(2016), 「문학교육을 통한 비판적 사고의 재구조화 연구」, 『국어문학』 62, 367-405.
- 허혜정(2006), 「<처용가>와 현대의 문화 콘텐츠」, 『현대문학의 연구』 28, 43-78.

- 허혜정(2008),『처용가와 현대의 문화산업』, 서울: 글누림.
- 홍기문(1996),『고가요집』, 서울: 한국문화사.
- Fink, B. (2010),『라캉의 주체』, 이성민(역), 서울: 도서출판b(원서출판 1997).
- Culler, J. (2016),『문학이론』, 조규형(역), 파주: 교유서가(원서출판 2011).
- Ricoeur, P. (1998),『해석 이론』, 김윤성·조현범(역), 서울: 서광사(원서출판 1976).
- Ricoeur, P. (2006),『타자로서 자기 자신』, 김웅권(역), 서울: 동문선(원서출판 1990).
- Zizek, S. (2013a),『라캉 카페』, 조형준(역), 서울: 새물결(원서출판 2012).
- Zizek, S. (2013b),『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수련(역), 서울: 새물결(원서출판 1989).

## 자기이해로서의 고전시가 교육 —「처용가」를 중심으로

오수엽

자기이해 교육에서 고전시가의 타자성이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타자의 자기화 과정으로서 현재적 재맥락화가 필요하다. 이때 현재적 재맥락화란 학습자가 텍스트의 심층적 맥락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동질성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자기이해를 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처용가」의 표층적 맥락에는 ‘주술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역병 퇴치’가, 심층적 맥락에는 ‘상징화를 통한 불안 의식의 극복’이 내재되어 있다. 학습자는 「처용가」의 맥락을 자신의 현재 맥락에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일상과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성찰하고 확장적인 자기이해를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학습자가 과거의 맥락을 반추하여 이를 현재 맥락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킴으로써 새롭고 확장적인 자기이해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고전시가 교육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

핵심어 고전시가 교육, 자기이해, 현재적 재맥락화, 처용가, 표층적 맥락, 심층적 맥락

## ABSTRACT

# Classical Poetry Education as a Process of Self-understanding

—Focusing on the Classical Poetry, ‘Cheoyongga’

O Suyeop

In the educational field of classical poetry, for the concept of otherness to be meaningful, it is necessary for it to be re-contextualized in the present aspect as a process of self-reflection. Here, the meaning of the re-contextualization is the active process of discovering the homogeneity between the in-depth context of the text and learners. Within this homogeneity, learners can build up a whole new self-understanding through self-reflection.

The superficial context underlying ‘Cheoyongga’ is ‘the eradication of human plague based on shamanic ideology,’ and the in-depth context is ‘overcoming of anxiety through symbolization.’ By reflecting on the context of ‘Cheoyongga’ in their current context, learners can think about their daily lives and the reality of the underlying ideology of their lives to develop an expanded self-understanding.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context from classical poetry into learners’ current lives can help learners expand their self-understanding. Consequently, classical poetry education can lead learner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s.

**KEYWORDS** Education of Classical Poetry, Self-understanding, Re-contextualization, Cheoyongga, Superficial Context, In-depth Context